

작성자: 진송옥 (박사과정 3기)

제 11 장: 관계적 지리학

전통적 지리학(형태학)은 공간을 경계와 한계가 뚜렷한 개별 단위 (예: 지역, 장소, 지형)로 구성된 실체, 즉 이미 주어진 고정된 실체로 본다. 공간은 사물과 현상을 '배치'하는 토대이다. 관계적 지리학은 공간을 인간, 사물, 비인간적 요소들 간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산물로 본다. 따라서 공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계망과 함께 끊임없이 나타나고 변한다. 이는 물리적 거리나 절대적 크기보다 연결 정도와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형태학보다 위상학적(topology) 사고와 가깝다. 따라서 전통 인문지리학의 연구 대상을 경관의 묘사와 분석에서 인간과 공간의 연결·상호작용 관계 연구로 전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공간에서 추상적인 연결 공간으로의 이동이다.

매시의 관점은 도시를 완성된 구조가 아닌 진행 중인 과정으로 분석하게 한다. 이는 세계화, 이주, 경제 전환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서울,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의 특성과 부합한다. 즉 "서울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 "서울이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서울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고, 초국가적 연결을 통한 공간 재구조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다문화 거리,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 스마트 도시 계획과 같은 새로운 요소들을 기존 구조에 '부가'된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 형성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게 한다. 다시 말하자면 서울의 계속 형성 중인 정체성은 '서울 사람'이나 '한국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 이주 노동자, K-pop 이나 K-drama 문화 네트워크, 정보기술과 같은 글로벌 연결에 의해서도 형성될 것이다.

제 13 장 자연 너머의 지리학

이 장에서 언급된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의 재결합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학문 조직 구조와 연구 지원 정책 양측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Critical Physical Geography* 나 도린 매시(Doreen Massey)의 공간-시간(space-time) 개념과 같은 접근은 두 분야를 연결할 잠재력을 이미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첫째, 대학과 연구소의 조직 구조가 두 학문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어 평가 기준과 연구 방법에서 차이를 낳는다. 둘째, 방법론의 간극이 크다. 자연지리학은 주로 정량분석, 모형화, 법칙 탐구에 치중하는 반면, 인문지리학은 질적 방법과 사회-역사적 맥락 분석을 중시한다. 이 밖에도 과학 언어의 차이와 전문 분야 중심의 학술지 출판 압박은 학제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

발제 부분은 동아시아 산업화의 역사를 서구로부터의 자본 흐름과 환경 정책과 연결시켜 “생태적 부담 전가” 과정을 명확히 드러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는 단순히 동서 관계의 문제라기보다 글로벌 자본주의 공급망 속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제 3 세계 국가) 간의 관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본, 한국, 중국,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도 경제 발전 수준이 높아진 이후에는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생태적 부담 전가”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다.